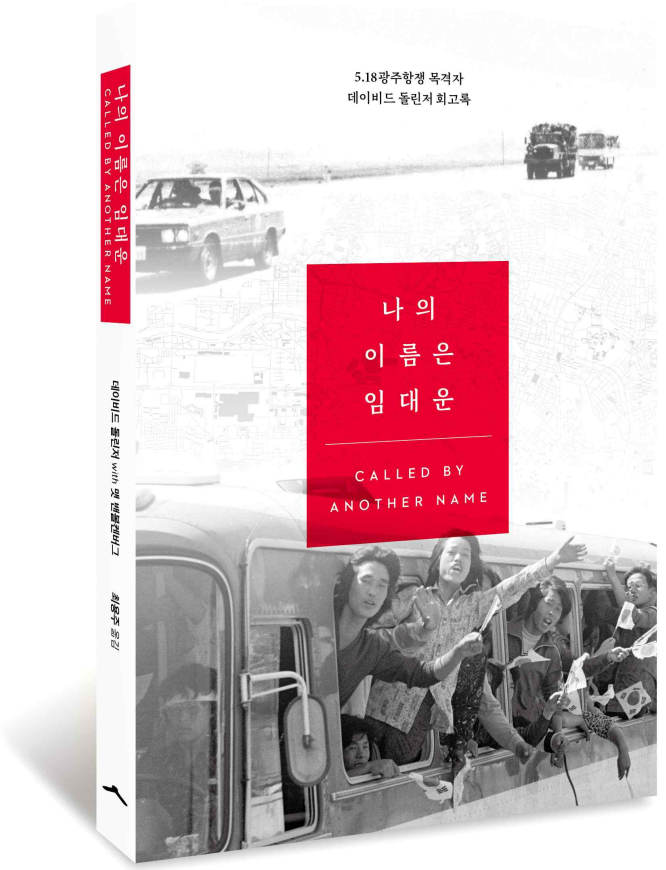
PRESS RELEASE

5.18광주항쟁 목격자 데이비드 돌린저 회고록

나의 이름은 임대운



■ 저자: 데이비드 돌린저 |
공동 저자: 맷 밴볼켄버그

■ 역자: 최용주

■ 분야: 인문교양역사/회고록

■ ISBN: 979-11-978605-0-8

■ 가격: 17,000 KRW

■ 분량: 248p

■ 크기: 152 x 210mm | 소프트

■ 출간일: 2022/05/12

■ 출판사: 객 (호하스의 논픽션 브랜드)

■영문판: Called by Another Name, ISBN:979-8-9856069-9-7

■ 저자 인터뷰/데이비드 돌린저(임대운) 박사 한국 방문
서울: 5월 11~13일 / 광주: 5월 16일~19일 (문의: 박소연 soyeonaaaa@naver.com)

***아마존 예약판매 한국역사 신간 분야 1위**
***국문, 영문 5월 동시 출간**
***광주시민과 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하룻밤을 지낸 유일한 외국인의 회고록**

책 소개

5.18 광주항쟁의 한가운데 한국 이름으로 불렸던 미국인의 이야기

데이비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것. 미국 청년 데이비드는 평화봉사단으로 1978년, 한국에 처음 도착한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고, 한국어 선생님에게 '임대운(林大雲)'이라는 한국 이름을 받는다. 그 후로 그는 임대운으로 불리며, 전라남도 영암의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를 돌본다.

1980년 5월 18일, 동료 평화봉사단원의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에 대운은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광주로 간다. 터미널은 짙은 최루탄 냄새와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영암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광주에 발이 묶인 대운은 동료 평화봉사단원이자 친구인 팀 원버그와 마주친다. 팀이 격앙되어 군인들이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운은 광주 시내의 분위기를 보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날 버스 운영이 재개되어 대운은 영암으로 돌아오지만, 광주로 전화가 끊기고 군인의 폭력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소식이 들린다. 팀과 한국인 친구들이 걱정된 대운은 광주로 돌아가 친구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기로 한다. 5월 21일 그가 탄 광주행 버스는 나주에서 멈추고, 아름다운 한국의 5월에 대운은 걸어서 광주로 들어간다.

항쟁지도부와 전남도청에서 하룻밤을 지낸 유일한 외국인, 임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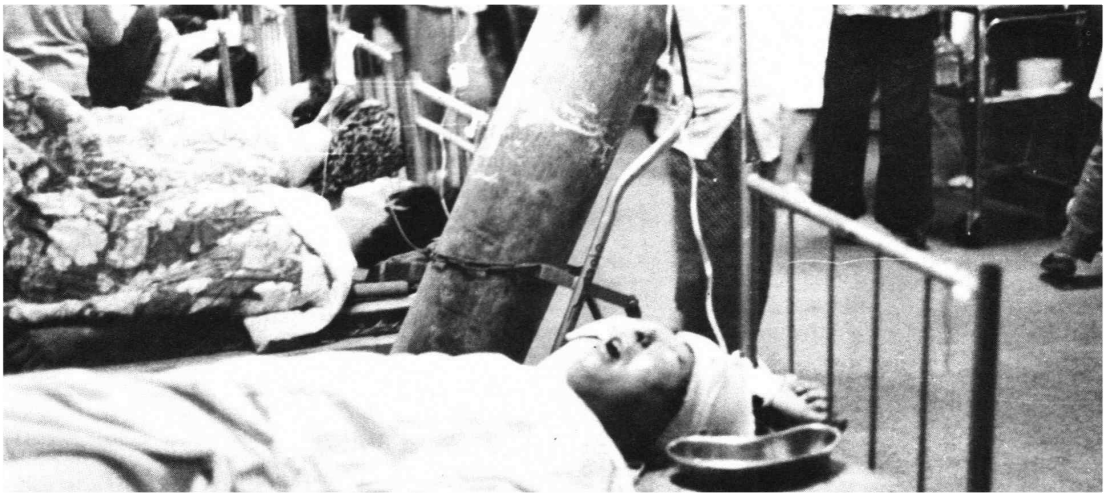
광주로 걸어 들어가던 대운은 환호하는 시위대가 탄 군용트럭과 버스를 만난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는데,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이들의 앞에 가고 있던 택시에서 내린 한국중앙정보부 요원이 그에게 카메라를 요구한다. 대운은 그에게 한국말로 신분증으로 요구하며 거부하고, 그는 각목을 대운의 가슴에 들이밀며 위협한다. 겨우 상황을 모면하고, 광주로 들어간 그는 금남로에서 헬기 사격을 피하고, 잔인한 폭력의 잔해를 마주한다. 그는 친구 팀을 만나 동료 평화봉사단원들과 함께 부상자를 돕고 외신기자에게 통역하며 가능한 많은 것을 목격하고자 한다. 항쟁이 끝난 직후, 광주에 남아있던 평화봉사단원들은 모두 서울로 소집된다. 파견국의 정치적 상황에 중립을 지킨다는 평화봉사단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운은 해임된다. 해임된 평화봉사단원은 그가 유일하다.

평화봉사단 해임, 그 후

더 이상 평화봉사단 신분이 아니지만 그는 어떻게든 한국에 남기로 한다. 대운이 찍은 사진은 또 다른 평화봉사단원들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가 외신에 보도되고, 그는 한국에 남아 감시를 받으면서도 반정부 인사들과 접촉해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내 인생의 오일팔, 광주MBC (2020)
https://youtu.be/iKplAL3Ai1c
*SBS 5.18 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46602

(사진 © 데이비드 돌린저/임대운) 나주에서 광주로 걸어가는 길에 찍은 사진. 시위대로 가득한 군용트럭과 버스. 앞의 택시에 중앙정보부요원이 타고 있었다.



(사진 © 데이비드 돌린저/임대운) 전남대병원 시신 안치소에서 그가 찍은 사진은 AFP와 커버트 액션에 보도되었다. 사진은 평화봉사단원인 캐롤과 스티븐이 해외로 반출했다. (관련기사)

평화봉사단원과 광주항쟁

(사진 © 힌츠페터, 5.18기념재단 제공) 전남대병원 옥상에서 평화봉사단원 주디 챔벌린, 팀 원버그, 폴 코트라이트, 데이비드 돌린저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이 네 사람은 항쟁기간동안 부상자를 돌보고 외신기자들에게 통역을 했다. 이 인터뷰를 한 팀 원버그는 국제앰네스티의 활동가로 소개 되었다.

팀 원버그는 후에 하와이대학에 진학해 <광주항쟁: 목격자의 견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지역감정 등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직접 목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논문을 도서에서 접할 수 있다.

(사진 © 나경택, 5.18기념재단제공) 항쟁 기간 중 사진에 찍힌 팀 원버그. 5월 19일 전남대병원으로 부상자 이송을 돕는 이 외국인이 팀 원버그인 것은 한참 후에야 알려졌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리 돌린저 David Lee Dolinger(임대운), 저자

템플대학교에서 미생물학과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35년간 인간의 질병, 특히 감염병 진단 방법을 개 발해 왔다.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맡으며 체외진단 검사와 장비의 디자인, 개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1978년 처음 한국 에 평화봉사단으로 도착해 한국 이름을 받았다. 한국어 선생님에게 받은 이름 임대운林大雲의 성은 숲을, 이름은 큰 구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평화봉사단 활동과 광주 항쟁을 목격한 뒤 그의 인생은 다른 길로 들어섰고 현재 의 그가 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맷 밴볼켄버그 Matt VanVolkenburg, 공동 저자

캐나다에서 2001년 처음 한국에 온 후 한국의 현대사에 매료되어, 광주항쟁 관련 자료를 열정적으로 연구했다. 2006년 온라인 포럼에서 데이비드 돌린저의 이름을 보고 그가 당시 광주에 있었던 평화봉사단원임을 알았다. 두 사람은 광주항쟁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이 깊어졌고, 회고록 집필을 함께 하게 된다. 블로그 〈것츠 오브 파퓰 러 필링 Gusts of Popular Feeling〉에 2005년부터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해 쓰고 있으며,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최근에는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에 대해 쓰고 있다.

최용주 Choi Yong-ju, 역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켄터키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과정을 수 료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기폭제 역할을 했던 전 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학술부장으로 활동했다. 5.18기 념재단 비상임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광주항쟁과 초국 적 후원망」,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등 의 논문을 발표했다. 번역서로 폴 코트라이트 『5.18 푸른 눈의 증인』, 욘 엘스터 『이행기 정의 : 역사적 관점』 등이 있다. 광주항쟁 해외 기록물을 발굴, 수집, 분석하던 중 당 시 평화봉사단원 청년 네 명이 목격하고 남긴 기록을 확 인하고, 이들을 찾아 나섰다. 팀 원버그는 일찍 세상을 떠 났으나 다른 두 사람 데이비드 돌린저, 폴 코트라이트와 연락이 닿았고, 이것을 계기로 폴 코트라이트의 회고록 에 이어 데이비드 돌린저의 회고록을 번역하게 되었다.

- **북 트레일러 [Kor] https://youtu.be/DUp7uMPwc40**
- **저자 인터뷰 보기 [Eng/Kor] https://youtu.be/8f3UAOzEtKM**

도서 문의 박소연 soyeonaaaa@naver.com
***호하스는 객으로 논픽션을 펴냅니다** | **홈페이지** www.goggasworld.com | **호하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관양동), 9층 (14055)